

“어려운 나라 도우며 한국 위상 높이겠다”

영암 출신 천영숙 재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장

“우리나라도 어려운 시절 세계 각국의 도움을 받았어요. 다른 나라를 도우면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신념으로 한인회를 이끌어 나가야죠.”

광주 출신인 박종범(58) 회장의 뒤를 이어 재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영암 출신 천영숙(66) 회장이 ‘2015 세계한인회장대회’ 참석차 고국을 방문했다. 재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는 회원 2500명을 두고 있는 유럽의 대표적인 한인단체다.

천 회장은 박 전 회장(현 유럽한인총연합회)과 함께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 임원(부회장)으로 일하다가 지난 2013년 12월 회장으로 선출돼 오스트리아와 한국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로 떠날 땐 그저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꿈 많은 아가씨에 불과했죠. 막상 일을 시작하면서 고항에 대한 그리움과 한국인에 대한 차별로 눈물을 흘렸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천 회장은 영암군 영암읍 선암리에서 6

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다. 해외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던 그녀는 22살 때인 1970년 선천 간호학교를 졸업한 뒤 독일로 떠났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그녀는 남편인 고(故) 이병규씨를 만나 1979년에 오스트리아로 살터를 옮겼다.

“남편의 한국 사랑이 유별났었죠. 운영하는 가게를 저한테 맡기는 것도 모자라 고생해 번 돈을 한인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다 써버리곤 했죠. 어느덧 저도 남편의 뒤를 따라가고 있네요.”

작고한 그녀의 남편 이씨 또한 오스트리아 한인회장을 역임했다. 한인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봉사활동과 한반도 통일연구회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런 남편을 따라 천 회장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간호사라는 전문성을 살려 어린이 교육과 양로원 봉사활동에 앞장서 왔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 한국을 떠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고국을 위해 고생

22살때 독일 간호사 파견
한인 차별에 서러운 눈물

네팔 대지진 등에 성금 기부
받는 이주민서 베푸는 존재로

2세대 고국 연결고리 약화
한국 문화 교육 강화로
한·유럽 가교역 도울 것

해은 동포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제가 오히려 더 즐겁습니다.”

그녀는 한국·오스트리아 친선협회 이사, 한국·오스트리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부회장은 물론, 한인문화회관 이사장,

한글학교 이사까지 겸하고 있다.

한인문화회관은 박종범 회장과 천 회장이 지난 2012년 오스트리아 동포들로부터 220만 유로(한화 29억원 상당)를 모금해 세운 것으로, 현재 오스트리아에서 대한민국 역사·문화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천 회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세계 속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2013년 잘츠부르크 흥수 때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에서 1만5000유로(2000만 원 상당)를 현지에 기부했다. 지난 5월에는 대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에도 1만2600유로(1500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

“오스트리아는 물론 유럽에서 한인 사회가 ‘도움을 받던 이주민’에서 이제는 ‘도움을 베푸는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게 됐어요.”

천영숙 회장은 “이민 1세대인 저희와 달리 2세대들은 주류 사회에 쉽게 진입하고 있지만 고국에 대한 연결 고리가 많이 약해졌다”며 “젊은 이민세대들이 유럽과 한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글과 한국의 문화 교육에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파독 간호사로 1970년 유럽으로 건너갔다가 45년 세월이 흘러 재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 여성 회장에 오른 천영숙씨. /연합뉴스

엄기욱 광주복지재단 대표 내정자 낙마

市 내정 철회...대표 재공모

반(反)시국선언 참가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엄기욱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내정자가 결국 낙마했다.

광주시는 7일 엄 내정자의 내정을 철회하고 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조만간 대표이사에 대한 재공모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모와 시의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새 대표이사 임명은 빨라야 11월경에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엄 내정자가 시의회 청문회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 논문 표절 논란 등이 제기되는 등 부적격 지적을 받았으며 ‘대의기구인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시의회 반대와 부정적인 여론 등을 감안할 때 복지재단을 무난하게 이끌고 갈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윤장현 시장은 시 기자회견을 찾아 “시의회 인사청문회가 품(모양)으로만 있지 않다. 입으로만 시의회를 대의기관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내정 철회를 강력히 시사했다.

엄 내정자는 8월 20일 내정된 이후 지난달 21일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인사특위는 “엄 내정자는 광주정신에 반하는 정치적 편향성과 청문회 위증 등 신뢰와 소통의 리더십과 임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부적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 시국선언은 엄 내정자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 등을 요구하는 전국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에 반대하는 이른바 뉴라이프 계열 교수들이 주도한 서명에 참여한 것을 말한다. 엄 내정자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이름을 도용당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내정자가 낙마한 것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4월에 자진사퇴 형식으로 낙마한 유재만 김대중컨벤션센터 대표이사 내정자에 이어 두 번째다.

이와는 별도로 광주시는 지난 1일자로 신규 임명한 사무처장과 장애인지원장, 일반 직원 등에 대해 임명장을 주고 본격적인 재단 업무에 들어갔다. 엄방열 시 복지건강국장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최권원기자 cki@kwangju.co.kr

“Made in 문화전당, 경제 활성화·국격 높일 것”

김병석 아시아문화원장 취임 문화전당, 콘텐츠 제작·유통·교류 역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생산된 작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국격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김병석(51) 아시아문화원장은 7일 광주 동구 금남로 문화전당에서 열린 취임사에서 문화전당 개관준비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그는 “11월 말 전당 개관에 맞춰 모든 힘을 집중하고 개관 이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해야 한다”며 “우리가 개발하고 제작한 작품들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런칭이 되고,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에게 선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전당 콘텐츠 제작 방향과 관련,



교류하는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인의식과 전문성, 자긍심 등 3가지를 톡톡 풍치면 애국을 할 수 있다”며 “첫 발자국이 미미할 수 있지

만, 5년, 10년 뒤 성장하는 과정에서 함께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흥 출신인 김 원장은 광주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삼성 전자 영상사업단에서 공연사업을 담당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음악산업 팀장과 CJ엔터테인먼트 및 CJ E&M의 공연사업 부문 대표를 역임했다.

아시아문화원은 지난 3월 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설된 기관으로 문화전당의 콘텐츠 장·제작과 수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우리문화지킴이와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5~6일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한 결과 64.2%가 “송례문과 훈민정음 중 훈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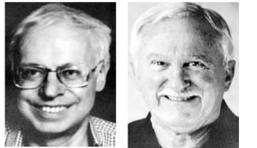
정음이 국보 1호가 돼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7일 밝혔다. 반면 훈민정음 대신 송례문을 꼽은 사람은 20%에 그쳤다.

왕립과학원은 “이들의 연구는 살아있는 세포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을 제공했으며 특히 새로운 암 치료법 개발의 길을 열었다”며 수상자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국보1호, 송례문 보다 훈민정음” 64.2%

문화재제자리찾기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예닐곱 명은 국보 1호로 송례문보다 훈민정음을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토마스 린달
폴 모드리치
아지즈 산자르



노벨 화학상 수상

올해 노벨 화학상의 영예는 DNA(유전자) 복구 메커니즘 연구에 공헌한 스웨덴과 미국, 터키 태생의 학자 3명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7일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토마스 린달(77·스웨덴·프렌치스 크리연구소·위 왼쪽), 폴 모드리치(69·미국·하워드 휴스 의학연구소·위 오른쪽), 터키 태생의 아지즈 산자르(69·노스캐롤라이나대·아래)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왕립과학원은 “이들의 연구는 살아있는 세포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을 제공했으며 특히 새로운 암 치료법 개발의 길을 열었다”며 수상자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주광역시도시공사 2015-126호

호두메마을광주형 타운하우스 선착순 동호지정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 임대대상 :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153번길 31(산수동), 호두메마을 광주형 타운하우스 95세대 중 81세대

1. 공급내역 (단위:㎡)

공급 유형	주책군	발코니 유형	평면 유형	세대별 주택면적(㎡)				세대별 대지비	최고 층수	세대 수(호)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합 계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계약면적	계		기계약	전세대상
일반 분양	59군	확장형	59A	59.9191	22.0844	82.0035	3.4400	38.4358	123.8793	60.6182	5	10	4	6	전세금 원납후 즉시
			59B	59.7428	21.7460	81.4888	3.4299	38.3227	123.2414	60.4399	5	10	3	7	
	84군	확장형	84A	84.6429	21.7313	81.3742	3.4242	38.2587	123.0571	60.3388	5	5	2	3	
			84B	84.6115	28.5318	113.1433	4.8576	54.2751	172.2760	85.5987	5	55	4	51	
		확장형	84B	84.7063	28.7893	113.4956	4.8631	54.3359	172.6946	85.6947	5	10	1	9	
			84C	84.7776	29.0387	113.8163	4.8672	54.3816	173.0651	85.7668	5	5	-	5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 1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10.08(목))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로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배우, 자녀, 부모)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합니다.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10.08(목))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 주소지, 주택소유여부, 청약통장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자 선정방법

- 1순위: 2015. 10. 13(화) 10:00시 이전 도착(2015. 10. 14일도 동일하게 적용)
 - 계약장소에 도착한 분이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순번을 정하고 그 순번대로 즉시 계약체결
- 2순위: 2015. 10. 15(목) 10:00시 이후 도착(2015. 10. 16일도 동일하게 적용)
 - 계약장소에 도착한 분이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순번을 정하고 그 순번대로 즉시 계약체결
 - ※ 순번 추첨 및 순번대기표 수령후라도 잔여세대 계약체결완료시 순번 추첨 및 순번대기표는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3.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계약일정 및 장소

구분	일시	장소
1순위	2015. 10. 13 ~ 2015. 10. 14 (10:00 ~ 16:00)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빛고개고객센터 (고객행복센터 내 분양보상팀) (광주광역시 서구 사창로 26)
2순위	2015. 10. 15 ~ 2015. 10. 16 (10:00 ~ 16:00)	
잔여세대	2015. 10. 19 ~ 전세임대 완료시 까지 (10:00 ~ 16:0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gmcc.co.kr) → 분양·임대정보 → 분양공고 참조를 준용하며, 공사홈페이지, 팸플릿 및 현장담사 등을 통하여 단지여건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8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광고영업사원 모집

창사 64주년을 맞은 호남 대표 정년제 광주일보사가
참신한 인력을 널리 구합니다. 신문과 방송, 모바일이
어우러진 본격적인 융합미디어 체제를 갖춘 광주일보에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십시오.
창의적이고 능력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1. 모집대상

가. 모집부서: 광고영업(남0명, 여0명)
 나. 최종합격자에게 회사 규정에 의한 직위 부여
 다. 전형방법
 (1) 1차: 서류전형
 (2) 2차: 면접
 다. 자격 및 대상
 (1) 199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 각종 영업부서 경력자 우대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재(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2. 제출서류

가. 이력서..... 1통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1부

3. 전형일정

가. 서류접수: 2015. 10. 5(월) ~ 10. 12(월) 방문 또는 우편접수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5. 10. 14(수) 개별통보
 다. 면 접: 2015. 10. 15(목)
 라. 최종합격자 발표: 2015. 10. 16(금)

4. 서류접수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무등빌딩 16층
 광주일보사 경영지원본부(☎ 220-0514 우. 61482)

※우편접수는 2015. 10. 12(월) 소인분까지 유효함.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광주일보